

KORDI ISSUE PAPER



2022-2

발행일 2022.12.14.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¹⁾

김 가 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kwkim@kordi.or.kr)

요약

- 본 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2,59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교육 개선 의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음.
-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령, 학력수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경제적·비경제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를 반영한 교육 목적 설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수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노인일자리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추진 이래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2025년 초고령사회 도입 전망에 따라, 향후에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정책

1) 본 고는 김가원(202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지원체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38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발표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전달체계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임.

- ▷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방향 수립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교육 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성문주, 2022).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본격화, 특히 국민연금 수급 세대가 노인계층으로 유입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내 정책대상의 특성도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잠재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방향 수립이 요구됨.
 - 이에 본 고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 (분석자료) 본 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²⁾의 참여노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 (연구대상) 본 고의 자료는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단 527,205명을 대표하기 위해 사업유형별 임의할당 후, 지역 별 특성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하여 추출하는 방식의 비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disproportionate sampling)으로 수집된 자료임. 또한 실태조사 표본 3,086명 자료 중, 본 고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488명을 제외한 2,59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 (분석 내용) 본 고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등 응답 자료를 살펴보았음.

〈표 1〉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유형, 주거 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월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 사업 유형, 소속 수행기관 유형, 참여 경력, 참여 동기, 생애최초 일자리, 최장 종사 직업, 직무 관련성, 향후 참여 희망 년수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 교육 흥미도 향상,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화 정보 전달, 교육 횟수 또는 시간 조정

- ▷ (분석 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개선의견 관련 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함.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2007년 처음 실시한 뒤,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9년 여섯 번째 실시된 조사자료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
-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개선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개선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함.

3.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거형태, 교육수준, 가구유형, 주거형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월소득을 살펴보았음.
 - (성별)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62.6%로 남성보다 많음.
 -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4.53세(SD=5.45)이며, 80대도 19.3%로 나타남.
 -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동부 75.2%, 읍면부 24.8%로 분포함.
 -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노인부부 가구가 50.8%, 독거 32.0%, 가족동거 17.1% 순임.
 -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자가 69.8%, 전세 13.1%, 월세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졸이 3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졸 26.9%, 고졸 26.3%, 무학 4.9%, 대졸 이상 9.0% 순임.
 -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노인부부 가구가 50.8%, 독거 32.0%, 가족동거 17.1% 순임.
 -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자가 69.8%, 전세 13.1%, 월세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졸이 3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졸 26.9%, 고졸 26.3%, 무학 4.9%, 대졸 이상 9.0% 순임.
 - (주관적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기준, 참여 전 3.68점(SD=0.77)에서 참여 후 3.85점(SD=0.72)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5점 기준, 참여 전 2.88점(SD=0.77)에서 참여 후 3.23점(SD=0.73)으로 나타남.
 - (월소득) 조사대상자의 월소득은 평균 122.24만원(SD=106.67)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n=2,598)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972	37.4	주관적 건강 상태	참여전	건강하지 않음	146	5.6	
	여	1,626	62.6			보통	844	32.5	
연령	60-69세	476	18.3			건강함	1,608	61.9	
	70-79세	1,621	62.4			(점) M=3.68(0.77), min=1, max=5			
	80세 이상	501	19.3			참여후	건강하지 않음	66	2.6
	(세) M=74.53(5.45), min=60, max=93						보통	698	26.9
거주 지역	동부	1,954	75.2		건강함		1,834	70.6	
	읍면부	644	24.8		(점) M=3.85(0.72), min=1, max=5				
가구 형태	가족 동거	444	17.1		주관적 경제 상태	참여전	나쁨	673	25.9
	노인 부부	1,320	50.8				보통	1,505	57.9
	독거	831	32.0				좋음	420	16.1
	기타	3	0.1				(점) M=2.88(0.77), min=1, max=5		
주거 형태	자가	1,813	69.8	참여후			나쁨	284	10.9
	전세	340	13.1				보통	1,499	68.6
	월세	246	9.5			좋음	815	31.4	
	기타(무료임대, 공동주거 등)	199	7.7			(점) M=3.23(0.73), min=1, max=5			
교육 수준	무학	129	4.9			월소득	60만원 미만	668	25.7
	초졸	853	32.8				60~120만원 미만	1,185	45.6
	중졸	699	26.9	120~180만원 미만			288	11.1	
	고졸	682	26.3	180만원 이상			257	17.6	
	대졸 이상	235	9.0	(만원) M=122.24(106.67), min=25, max=833					

2) 조사대상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 조사대상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 유형, 소속 기관 유형, 참여 경력, 참여 동기, 이전에 경제활동 참여 여부, 최장 종사 직업,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직무 관련성, 향후 참여 희망 년수를 살펴봄.

- (사업유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은 공익활동 66.8%, 시장형사업단 19.7%, 사회서비스형 13.5%로 분포함.
- (소속기관) 노인복지관, 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하는 노인이 3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22.8%, 대한노인회 14.7%, 사회복지관 10.0% 등임.
- (참여 경력) 노인일자리사업 평균 참여경력은 3.55년(SD=2.70)이며, 신규 참여자는 23.6%로 나타남.
- (참여 동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는 '생계비 마련'이 5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용돈 마련' 20.1%, '여가 활용, 즐거움' 9.8%, '건강 유지' 9.1%, '사회참여, 관계 형성' 7.0%, '자아실현, 자기발전' 2.7% 순으로 나타남.
- (생애최초일자리) 노인일자리가 생애 최초 경제활동인 경우는 36.3%로 나타남.

〈표 3〉 조사대상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단위 : 명, %, n=2,598)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사업 유형	공익활동	1,735	66.8	생애 최초 일자리	처음 경제활동 참여	943	36.3
	사회서비스형	352	13.5		이전 경제활동 경험 있음	1,655	63.7
	시장형 사업단	511	19.7	최장 종사 직업 (n=1,655)	단순노무 종사자	325	19.6
소속 기관	노인복지관(센터)	768	31.9		서비스 종사자	261	15.8
	시니어클럽	593	22.8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252	15.2
	대한노인회	382	14.7		판매 종사자	222	13.4
	사회복지관	259	10.0		사무종사자	162	9.8
	지자체	200	7.7		기술공, 준전문가	133	8.0
	기타	336	12.9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	100	6.0
	참여 경력	신규 참여자	612		23.6	전문가	98
2년차~4년차		1,226	47.2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54	3.3
5년차 이상		760	29.3		고위임원직, 관리자	22	1.3
(년) M=3.55(2.70), min=1, max=15			군인, 기타	26	1.5		
참여 동기	생계비 마련	1,331	51.2	직무 관련성 (n=1,655)	관련 없음	1,364	82.4
	용돈 마련	522	20.1		관련 있음	291	17.6
	여가 활용, 즐거움	255	9.8	향후 참여 희망 년수	1년 이하	32	1.2
	건강 유지	236	9.1		1년~2년 이하	133	5.1
	사회참여, 관계 형성	183	7.0		2~3년 이하	295	11.4
	자아실현, 자기발전	71	2.7		4년 이상	2,138	82.3

3)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개선 의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노인일자리 교육 개선 의견은 ‘교육의 흥미도 향상’(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5.2%),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16.3%),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전달’(13.8%), ‘교육 횟수 또는 시간 조정’(11.5%)의 순임.

〈표 4〉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명, %)

구분	명	%
1. 교육의 흥미도 향상	774	33.2
2.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587	25.2
3.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	380	16.3
4.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전달	322	13.8
5. 교육 횟수 또는 시간 조정	268	11.5

(n=2,331, 단위: %)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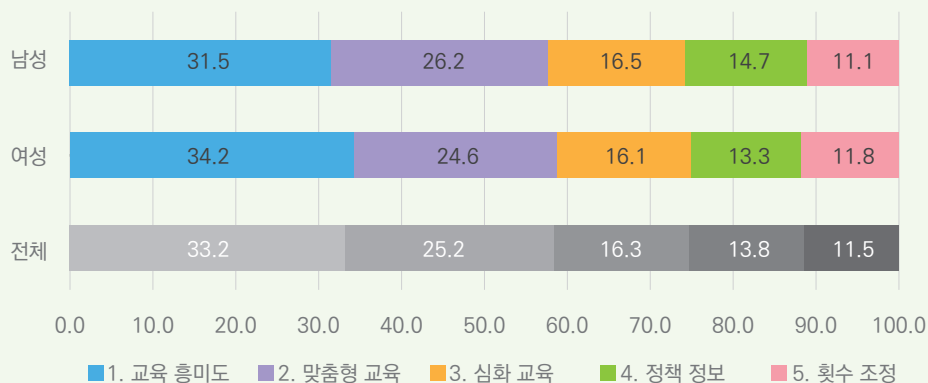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별 노인일자리 교육 개선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함.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참여동기별, 수행기관 유형별 교육 개선의견에 차이가 나타났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성별, 사업유형별, 참여경력별로는 응답에 차이가 없었음.

1)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유사하였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의 흥미도 향상’(34.2%), ‘교육 횟수 또는 시간 조정’(11.8%)을 높게 응답한 반면, 남성은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6.2%),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16.5%),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전달’(14.7%)에 대한 의견이 높았음. 성별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그림 2] 성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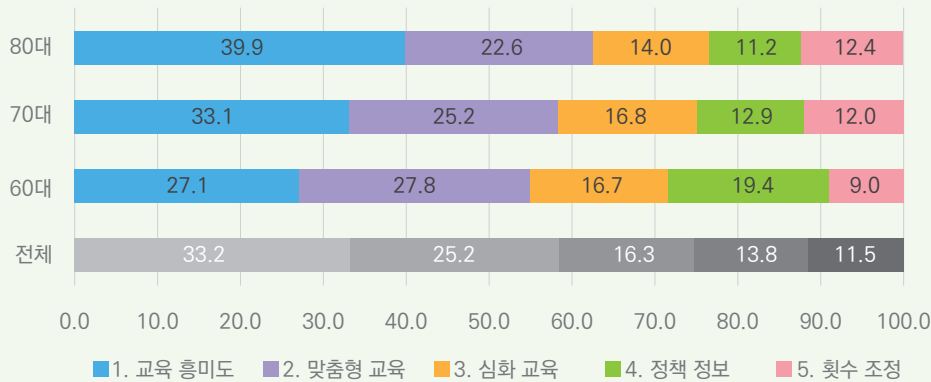


2)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은 참여노인 연령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 70대, 80대는 ‘교육의 흥미도 향상’을 각각 33.1%, 39.9%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60대는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7.8%)이 가장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령대별 교육 개선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chi^2=30.388, p<.001$),

[그림 3] 연령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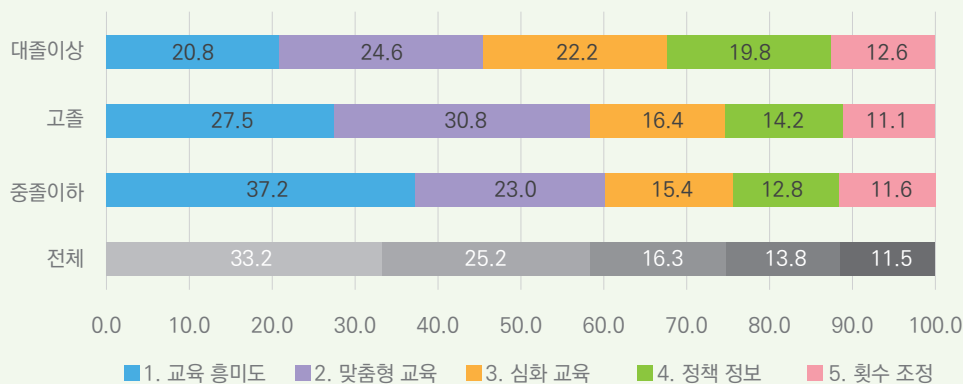


3) 학력수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학력수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은 참여노인 학력수준별 다른 특성을 보임.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교육의 흥미도 향상’을 37.2%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고졸’, ‘대졸 이상’은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각각 30.8%,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수준별 노인일자리 교육 개선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chi^2=45.436, p<.001$),

[그림 4] 교육수준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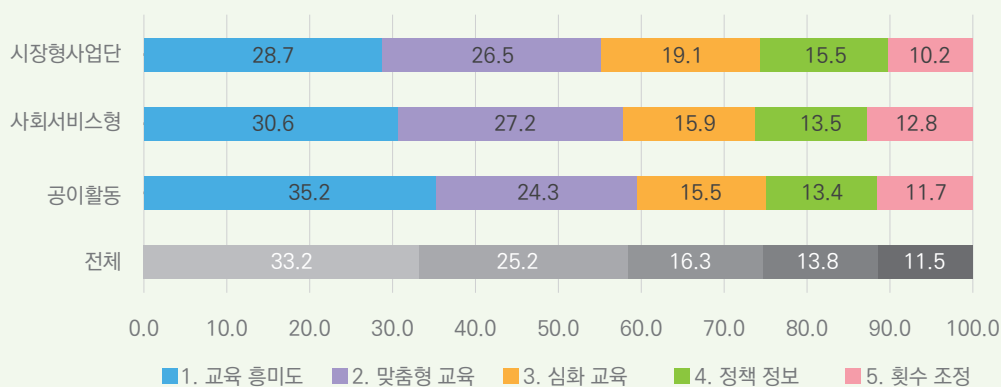


4)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에 대한 응답은 사업유형별로 유사하였음. 세 집단별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공익활동 참여자는 ‘교육의 흥미도 향상’(35.2%)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음. 반면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7.2%), ‘교육 횟수 또는 시간 조정’(12.8%)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음. 시장형 사업단은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19.1%),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전달’(15.5%)에 대한 의견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음. 사업 유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그림 5]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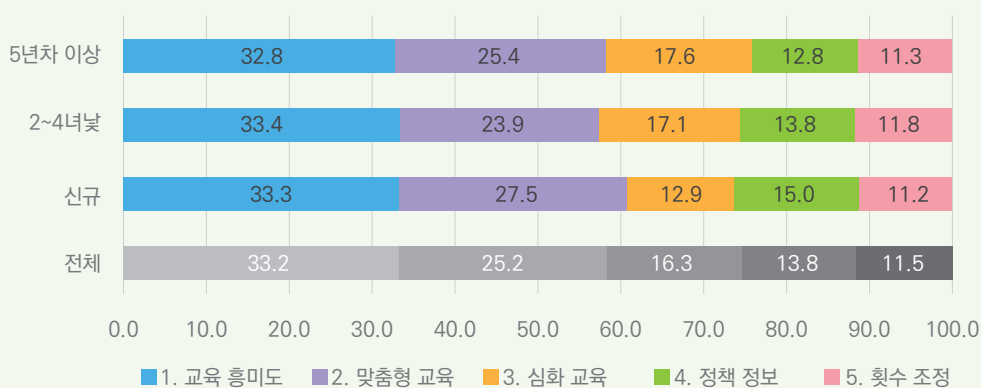


5) 참여 경력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 (참여경력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에 대한 응답은 참여 경력별로 유사하여, 모든 집단에서 ‘교육 흥미도 향상’(33.3%, 33.4%, 32.8%)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신규 참여자는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7.5%),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전달’(15.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년차 이상 참여자들은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17.6%)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참여 경력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그림 6] 참여 경력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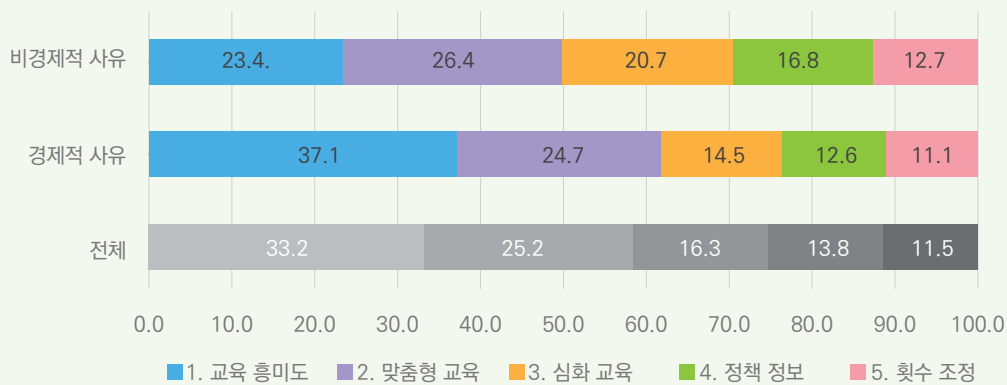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동기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참여동기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은 참여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동기별 다른 특성을 보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등 ‘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의 흥미도 향상’을 37.1%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의 수단, 건강 유지,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26.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동기별 노인일자리 교육 개선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chi^2=45.353, p<.001$),

[그림 7] 참여동기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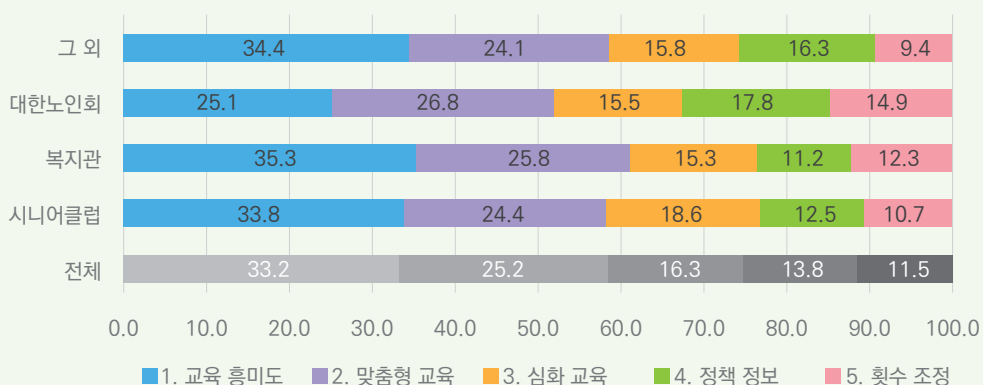
주) 경제적 사유: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비경제적 사유: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의 수단, 건강 유지,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용, 일을 통한 즐거움

7) 노인일자리사업 기관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

▷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그 외 유형의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하는 노인은 ‘교육의 흥미도 향상’을 33.8%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대한노인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26.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개선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chi^2=24.499, p<.001$),

[그림 8] 기관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 의견

(n=2,331, 단위: %)



5. 제언 및 함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은 '교육 흥미도'(33.2%)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25.2%)를 높게 꼽았음.
-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교육 개선의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 학력 수준에 따라 노인일자리 교육 개선의견은 다른 양상을 보임. 상대적으로 고연령·저학력의 참여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서 '교육 흥미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저연령·고학력인 경우 '심화 교육', '정책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노인일자리사업 소양 및 직무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정종원 외, 2014).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집단 내 연령은 60대부터 90대까지, 학력 수준은 무학부터 대졸 이상까지 그 특성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이들의 역량과 교육 욕구 수준을 고려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안, 교수법 등 맞춤형 교육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참여 동기를 반영한 교육 목적 설정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등 경제적 사유가 주 목적인 경우(71.2%)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및 즐거움, 건강 유지,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 자아실현 및 자기 발전 등 비경제적 사유가 주 목적인 경우(28.8%)도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가 경제적 사유인지, 비경제적 사유인지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개선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냄. 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서 '교육 흥미도'(37.1%)를 가장 높게 원하고 있으나,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육 흥미도'(23.4%)가 13.7%p 더 낮음.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된 참여 동기가 비경제적인 사유에 있는 노인들은 '심화 교육'(207%), '정책 정보'(16.8%)를 상대적으로 높게 희망하고 있었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교육은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세대의 인적자원 활용의 의미가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으로서 노후설계 지원의 목적을 지님.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을 통해 참여노인들은 직무정체성, 참여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김가원, 2022).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에 부합한 교육 목표 설정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수행기관 역량강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은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도 수행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있음.

- 본 고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개선의견은 다른 특성을 보임. 시니어클럽 및 복지관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 흥미도'(33.8%, 353%)를 가장 높게 희망하는 반면, 대한노인회 참여노인들은 '맞춤형 교육'(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 정보'(17.8%)에 대한 의견도 시니어클럽과 복지관(12.5%, 11.2%)보다 더 높았음.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의 제공 주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노인일자리 담당자 등)임. 보건·복지서비스는 대인서비스(human service)의 특징을 지니므로 제공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침(김유휘 등, 2021).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수행기관(노인일자리 담당자 등)의 역량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본격화로 노인들의 욕구 및 이에 따른 정책의 다변화가 예상됨.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수행기관, 담당인력) 역량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임.

참고문헌

김가원(202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지원체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2년 한국노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제38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자료집.

김유휘, 고든솔, 안수란, 어유경, 윤강재, 강혜규, 이주민(2021). 보건복지 종사자교육 실태조사 수행방안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문주(2022).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정종원, 주성돈, 이선영, 권용민, 김태훈, 박지행, 전인석(2014). 노인취업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